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0.7.10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EU, 온라인 플랫폼에 '테러 선동 콘텐츠' 관련 조치 의무 부과
  - 7.2 EU는 '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'을 개정해 페이스북·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도 폭력·혐오·테러를 선동하는 콘텐츠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고 발표
- 英, 브렉시트로 인한 테러·조직범죄 등 대처역량 저하 우려
  - 7.6 「와일스」 英 생체인식기술국장은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범죄 기록정보시스템(ECRIS)·지문·DNA·유럽체포영장(EAW) 등에 접근할 수 없다면 테러·조직범죄 위협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
- 伊, ISIS가 만든 '지하드 마약\*' 8,400만정 압수
  - 7.2 伊 경찰은 ISIS가 시리아에서 생산한 '지하드 마약' 8,400만정 (무게 14톤, 시가 1조3천382억원)을 이탈리아 남부 도시 살레르노의 항구를 통해 반입하려는 것을 적발하여 압수하였다고 발표
  - \* 판매를 통해 테러활동 자금을 마련하고, 전투에 나서는 ISIS 대원들에게 복용시켜 두려움과 피로감을 줄이는데 사용
-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, 스테이블 코인\*에 'FATF 기준' 적용
  - 7.2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는 G20의 요청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(Stable Coin)에도 기존 암호화폐(비트코인 등)처럼 자금세탁방지과 테러자금 조달금지 등 'FATF 기준'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
  - \* 법정 화폐와 마찬가지로 가치의 척도가 되는 동시에 가치의 저장기능을 가지고 있으며, 테더(Tether, USDT)와 페이스북의 리브라(Libra)가 대표적

## 미 주

### ○ 美, 탈레반-알카에다 간 긴밀 연대에 우려 표명

- 7.1 美 국방부는 ‘아프가니스탄 內 안보와 안정 향상’ 보고서에서 탈레반이 알카에다 인도지부(AQIS)\*와 이념적 공감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프간 內 혼란 가중을 우려

\* 서남아 지역 세속주의 정권 타도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('14.9), 미국('16.7)·호주('16.11)·캐나다('16.12)에서 테러단체로 지정

### ○ UN,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테러에 대한 경계 촉구

- 7.6 「구테흐스」 UN 사무총장은 ‘대테러 주간’을 맞아 열린 화상 회의에서 “바이러스처럼 테러리즘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, ISIS·알카에다 등과 같은 무장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만과 혼란을 악용하고 있다”며 테러에 대한 경계를 촉구

## 아 · 태평양

### ○ 韓, 「대테러 체감훈련 XR 시스템」 개발 추진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‘디지털 뉴딜’의 일환으로 XR\*을 활용한 ‘대테러 체감훈련 XR 시스템’을 개발할 예정이며, 훈련장에서 증강·가상기술로 테러범·인질 및 돌발상황을 연출하여 대테러 요원의 몰입도를 높이고 복합테러 대응능력 향상을 추진

\* XR(eXpended Reality, 실감기술)은 VR(가상현실)·AR(증강현실)·MR(혼합현실)을 아우르는 기술

### ○ 홍콩, 테러 혐의 적용 ‘국가보안법\* 위반’ 첫 기소

- 7.3 현지언론은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에서 오토바이로 시위진압 경찰을 향해 돌진(7.1, 부상 3)한 남성(24세)에 대해 홍콩정부가 국가분열 선동 및 테러리즘 혐의를 적용,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최초의 사례라고 보도

\* 외세결탁·국가분열·정권전복·테러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7.1 시행

러시아, 모스크바 콘서트장 자살 폭탄테러

- '03. 7. 5. 오후 02:30경 모스크바 북서부 투시노 비행장內 록 콘서트장 입구에서 자살 폭탄테러로 16명 사망·20여명 부상
  - 당시 투시노 비행장에는 4만여명의 관람객이 '크릴라(날개)'라는 한여름 록 페스티벌을 관람하고 있었는데
  - '검은 미망인'이라고 불리는 체첸 여성 2명이 입구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자 허리에 감고 있던 폭탄 벨트를 터트리는 자살 폭탄테러를 감행
- 경찰은 테러범 여성의 몸에서 체첸 여권이 발견됐으며, 同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는 동시에 책임을 체첸으로 돌렸으며
  - 사고 직후 현장을 찾은 「보리스 그리즐로프」 내무장관도 체첸 분리주의 세력을 용의자로 지목

< 검은 미망인 >

- (유 래) '94~'96년 러시아 연방정부와 벌인 1차 체첸 전쟁·'99년 2차 체첸전쟁 이후 독립투쟁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 차도르 등의 검은색 이슬람 복장을 하고 테러를 감행하면서 붙은 별칭
  - ※ 최초의 검은 미망인 : 「하바 바라야바」 (17세)가 '00.6월 폭발물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체첸 주둔 러시아軍 기지로 돌진하다 막사 밖에서 자폭
- (활동수법) 몸에 폭탄벨트를 두르거나 폭탄 트럭을 이용한 자폭테러
- (테러사례) ① '02.10월 모스크바 극장 배우·관객 800여명 인질극(사망 170명)
- ② '04.09월 북오세티야 베슬란 인질 테러(사망 344명)
- ③ '08.11월 북오세티야 버스 폭탄테러(사망 11명·부상 28명)
- ④ '10.03월 모스크바 지하철 연쇄 폭탄테러(사망 41명·부상 88명)